



2017.03



홈페이지: <http://iscenter.or.kr> 이메일: iscenter2015@gmail.com
주소: (150-300)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7길 2 2층
전화번호: 070-7631-0615

목차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변화에 대담해져라!

[3](#)

2. 같이 한걸음

스페인: 기로에 선 포데모스

[12](#)

3. 변화의 물결

[여성주의 소모임] 뭇이 증헌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미디어

[16](#)

혁명의 수호와 전진을 위한 베네수엘라 인민의 투쟁은 계속된다.

[20](#)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추모식 사진 스케치

[23](#)

4. 국제뉴스

[프랑스] 이민정책 토론에서 주도권을 쥔 르 펜

[29](#)

[라틴아메리카] 볼리비아, 보편적 시민권 도입을 주장하다

[31](#)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변화에 대담해져라

(맨위로)

글: 심태은 (The 숲 편집장)

변화에 대담해져라!

#BeBoldForChange

세계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명의 여성 노동자가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
을 두고 있어. (멋썸 언냐들!!)

2017년의 주제는?

- '변화에 대담해져라' (Be Bold For Change)
- 성별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2186년이나 되어야 한다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 $\pi\pi$)
- 그래서 대담하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자는 것이 올 해 선정된 주제!

그럼 한국은?

- 1920년대부터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한국여성대회)를 치렀다고 해.
- 일제의 탄압, 해방 후에는 정권의 탄압에 중단되었다가 1985년이 되어서야 부활!!!!

올해로 33회를 맞이한 한국여성대회!

“페미니스트가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구호 아래 보라색 옷을 입고 광화문에 모여 행진(3월 4일)도 하고, 3월 8일 오후 3시에는 여성 파업에 나서기도 했지.



사진: 2017페미니스트행진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5

세계는 어떻게 여성의 날을 기념했을까?

- 그 동안 상업주의에 물들었지만, 올해는 달라...!
- 여성행진(Women's March)의 기운을 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섰다!
- 여성의 재생산 권리, 여성 노동, 여성 정책 등과 관련된 목소리가 지구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는~
- 우리 함께 사진으로 살펴볼까?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6

여성이 없는 하루: 국제 여성 파업

- 직장과 가정 양 쪽에서 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 월급은 남성보다 적고, 가사노동은 당연시되는 슬픈 현실
- '여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하루 파업을 실행한거야!
- 미국, 영국, 파키스탄, 홍콩, 캄보디아 등 5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었다고... (한국도!!)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7

여성살해에 반대하는 남미 여성들

-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여성살해(페미사이드)'
-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14세 여아의 잔혹한 살해사건을 계기로 2015년부터 여성살해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



멕시코 여성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된 여성을 기리는 의미로 전봇대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다

Jose Luis Gonzalez/AFP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8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외침

- 작년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검은 시위'를 기억하는 사람?
-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대해 반대한 운동이었지.
- 폴란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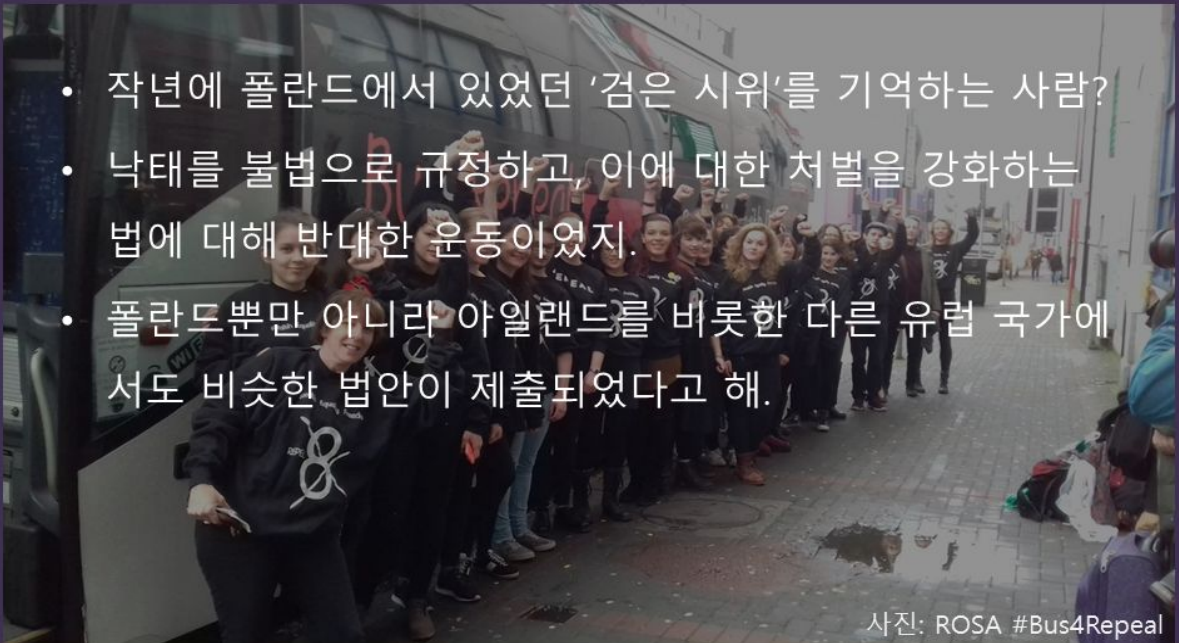


사진: ROSA #Bus4Repeal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9

여성의 정치 참여 및 여성 정책

-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을 위한 정책 입안 등에 대한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려왔어.
- 영국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동영상을 올렸고, 레바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극히 적은 문제 등을 지적하며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고 해~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10



영국 여성 국회의원들의 메시지



레바논 여성들의 행진 참여 공지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11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12

- 아이슬란드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기업들이 성별, 성적지향, 민족, 국적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해.
아이슬란드 정부는 2022년까지 성별 임금격차를 완전히 뿌리뽑는 것이 목표래~

성폭력은 이제 그만!!

- 인도, 인도네시아 등 수 많은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성폭력에 반대하며 행진에 나섰어.
- 일상 생활에서조차 성폭력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지~



다양한 여성 이슈들...

- 이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날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했어. 춤, 노래 등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말이지~



전통 춤을 추는 인도네시아 여성들
사진: The Dawn News



캐나다에서는 플래시몹을!
사진: Xinhua/Barcroft Images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15

- 특히 브라질에서는 1,500여명의 '토지가 없는 노동자 행동(MST)' 여성 회원들은 상파울루에 위치한 자원기업 발레(Vale) 건물 앞에서 이 기업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어. (걸크러쉬 짱!!)



사진: The Dawn News

2017년 3월호

The 숲: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16

- 지금까지 간단하게 전 세계에서 여성의 날을 어떻게 기념했나를 살펴봤어.
- 여성의 날을 그저 여성이 꽃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은 날려버리길!
- 여성들은 꽃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존중 받아야 할 소중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 그리고 앞으로는 여성의 날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매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의 목소리를 보내는 날로 기억하자~

2. 같이 한 걸음

스페인: 기로에 선 포데모스

(맨위로)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글쓴이: 데니스 로가티크
번역: 홍정희(번역팀, ISC)



스페인의 반긴축 좌파정당 포데모스는 2월 11일과 12일 이틀 간 당 대회(2회 전국시민의회)를 개최하여 차기 지방선거 및 총선을 위한 정치적 진로와 조직구조 및 선거 전략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몇 달간, 포데모스의 양대산맥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와 이니고 에레혼(Iñigo Errejón) 간의 긴장이 심화되었다. 스페인 각 지역 의회에서 그랬듯이 국회에서도 포데모스가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시장직 같은 국가기관에 대한 포데모스 지향, 풀뿌리 사회운동과의 관계 설정, 당 선출직과 집행구조의 탈집중화 문제, 좌파연합(IU)과의 관계, 신자유주의 중도좌파인 사회노동당(PSOE)에 대한 정치적 노선에 대해 치열한 내부 논쟁을 벌였다.

당 대회는 주로 당의 정치구조를 결정할 세 개의 표결에 초점을 두었다. 즉, 62명의 전국 시민위원 선출, 사무총장 선출, 그리고 정치, 조직, 윤리, 성평등 방침 문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포데모스 창립총회에서는 이글레시아스와 에레혼이 당내 반자본주의 경향에 반대하는 세력(Sumando Podemos)에 맞서 공동전선(Claro Que Podemos)을 형성하기도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시민의회에는 위원회 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 부류의 정파가 참여하고, 이들이 제출한 각각의 문서를 채택을 할 예정이다. 한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는 사무총장의 유일한 후보자로 입후보했다.

세 정파의 구성을 보면, 신자유주의 중도우파인 시민당(Ciudadanos)의 지지와 사회노동당의 기권으로 인해 보수 국민당(PP)의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의 “3당 연합”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내부적으로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엿볼 수 있다. 6월 26일 재총선에서의 “선거 기계” 전술 실패와 이글레시아스와 에레혼 사이의 양극화에 따른 당의 본질에 대한 논쟁 또한 뜨겁게 진행되었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 선거에서 포데모스의 접근 방식과 정치구조를 지배했던 “선거 기계” 프로그램은 인디그나도스 운동(Indignados, 분노한 사람들)의 부상으로 인해 열린 대규모의 정치공간을 빠르게 선점하고, 경제 위기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계층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좌파연합(우니도스 포데모스, 단결한 우리는 할 수 있다)과 선거연합을 꾸려 대응했음에도 2015년 12월에 비해 약 100 만 표를 잃은 6월 26일의 실망스러웠던 선거 결과와 9월 지방 선거에서 거둔 보통 수준의 결과, 전국에 걸쳐 나타난 사회운동 동력의 전반적인 하락과 우파 소수당인 국민당 정부의 귀환으로 인해 “선거 기계”의 한계와 현재의 20-25%대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내부 논쟁이 촉발되었다.

에레혼은 “좌우를 넘어 미래로!”라는 포데모스의 대표 구호를 유지하면서 당이 선출직과 국가기관 진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선호한다. 이글레시아스는 광범위한 계급투쟁과 사회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거 중심 운동에서 탈피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또한 그는 “3당 연합”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화해서 사회가 보다 급진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글레시아스 그룹 -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Podemos Para Todas) 그룹은 파블로 이글레시아, 이레네 모네떼로(Irene Monetero, 스페인 의회의 포데모스 대변인), 파블로 에체니케 (Pablo Echenique, 아라곤 포데모스 대표), 빈센트 나바로 (Vincent Navarro, 유명한 경제학 교수), 라파엘 마요랄 (Rafael Mayoral, 포데모스 하원 의원, 사회운동 장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정치 계획은 15M(5월15일) 운동과 라스 마레아스(Las Mareas, 조수)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반긴축 사회운동에서 포데모스가 태어난 당시 가졌던 본래 목표를 지향한다. 기존 사회운동을 지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부활한 사회적 투쟁은 2014년 이후 포데모스가 점령한 정치 공간 확장의 핵심적 논거가 되었다.

또한, 사회당 같은 "구시대" 주류 정당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좌파연합과의 기존 동맹을 유지하고 다른 반긴축 정치 세력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성원들의 토론과 참여 공간으로서 "포데모스 서클(Podemos Circles)"의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동시에, 조직의 다양한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당의 지역 및 자치지부와 선출직 대표자간의 의사결정의 "분권화"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도부와 당의 중앙 집권적 지도 체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는 "항상 현실에 입각하는 것"과 최소 당원 100 만 명과 핵심 당원 10 만 명 확보를 위해 현재의 당원 수 50 만 명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게 되면 포데모스는 국민당을 무너뜨리고 좌파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2019년과 2020년에 있을 지방 선거와 총선을 준비하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에레혼 그룹 - "희망 복구"

"희망 복구"(Recuperar La Ilusión) 그룹의 대표적 인물은 이니고 에레혼, 리따 마데스트레(Rita Maestre, 마드리드 시의회 의원), 후나 빼드로 야네스(Juan Pedro Yllanes, 전직 판사이자 발레아레스제도의 하원 의원), 빠블로 버스틴듀이(Pablo Bustinduy, 포데모스 국제관계 담당), 타니아 고나세스(Tania Gonalez, 포데모스 유럽 의회 의원), 산티아고 알바 리코(Santiago Alba Rico, 저명한 좌익 작가)이다. 이 그룹은 포데모스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에게 폭넓게 호소해서 사회당 득표수를 능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요 방법은 중산층에 포데모스의 대표 구호인 "좌우를 넘어서자"라고 중점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당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광범위한 애국적인 대중의 힘에 합류하기 위해, 스페인 경제 및 사회 계급을 초월하고, 스페인 사회의 다양한 세력을 끌어들이며 "유혹"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에 일조할 것이다.

이들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예 :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및 지방정부(예 : 발렌시아와 나바라)의 기관에서 포데모스가 차별화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유능한 행정을 펼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 밖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스페인의 현재 지역 분할에 따라 당을 분권화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 권한을 지역 시민위원회로 넘기며, 지자체 및 지방정부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반자본주의자 - "운동 내의 포데모스"

당 내의 포데모스(Podemos en Movimiento)는 유럽의회의 포데모스 소속 의원인 미구엘 우르반(Miguel Urban), 안달루시아의 포데모스 대표인 테레사 로드리게즈(Teresa Rodriguez)가 이끄는 당내 반자본주의 경향이다.

에레혼과 이글레시아와 달리 제 3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자본주의자들은 대개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가 내놓은 발언과 제안과 비슷한 맥락의 사회적 저항과 사회변화를 이끄는 세력으로서의 포데모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들은 사회운동을 포데모스의 "제도화"에 대한 반발이며, 포데모스가 스페인의 선출 구조 내에서 반긴축과 대중 투쟁 프로그램을 이행토록 하는 기제로 본다.

이 입장은 이글레시아와 에레혼 식의 포데모스에 대한 비판과 차이점을 담고 있다. 이 그룹은 특히 당의 선출 구조와 시민위원회(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의 분권화를 요구하면서 당이 2020년 총선 승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도권과 거리 양 쪽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좌파연합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그룹과의 동맹 유지를 지지한다. 동시에, 반자본주의자 자신의 제안서와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의 내용을 통합한 주요 문서에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강조하였다.

이글레시아와 에레혼 간의 전략적 사고의 극렬한 차이는 2014년 10월 이후 당 내에서 발생한 모든 모순과 내부적 차이가 극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2차 당 대회는 포데모스의 저명한 두 지도자 간 분쟁의 근저에 있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당 대회에서 투표 한 결과로 당 내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의 지위를 결정할 것이다. 비록 사무총장 직에 대한 직접 선거로 이글레시아스가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의 패배와 정치 문서 거부하는 그의 지도력의 끝을 보이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글레시아스 포데모스 사무총장 ‘거리로의 복귀’ 천명

- <그린레프트위클리((Green Left Weekly)>의 ‘의회 승리 후(After congress win)’ 기사 내용을 토대로 전국시민의회 결과 분석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가 제안한 네 가지 의견문서 모두 압도적 지지(최저 득표율 53%)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당의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 또한 시민위원회 총 60석 중 37석을 차지한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는 당의 정책 결정 기구인 시민위원회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희망 복구" 그룹은 23석을, "당 내의 포데모스"는 2석을 차지했다. 에레혼과 경쟁 없이 이글레시아는 89.09%의 지지로 그의 유일한 경쟁자를 쉽게 격파했다. "모두를 위한 포데모스" 승리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는 이글레시아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임할 것이라는 발표였다. 이글레시아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라호이 정부에 대한 사회저항에 다시금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그는 당이 사회당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한 편, 다른 반긴축 운동과는 계속 연대하기를 원한다. 이글레시아는 또한 단결, 겸손,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강조했다.

3. 변화의 물결

[여성주의 소모임] 윗이 중헌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미디어

(맨위로)

글: 송대한 (The 숲 편집장)

번역: 이주희(번역팀, ISC)



(출처: wordrok.com)

가슴이 드러나는 톱을 입은 상체사진이 거울에 붙어 있다. 이 광고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며 상체 사진에 자기 몸을 “맞춰” 볼 것이다. 사진 주위를 “짱이에요~”, “헉! 부럽당~”, “이게 정말 내 가슴이?”와 같은 속삭임과 생각들이 둘러싸고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로 연결될 것이다. 우리의 다음 광고는 “Make me better(더 나은 나를 만들자)”라는 문구 아래 납작한 배, 그리고 엉덩이와 다리의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여성을 보여 준다. 그 다음 광고에서는 한국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의 다리, 상체, 팔 길이, 엉덩이와 허벅지, 허리, 그리고 가슴둘레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상적인 몸은 칭찬과 부러움, 소비의 대상이 되지만, 그 반대는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한국에서 인기있는 주말 저녁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두 에피소드에서는 출연진 중 한

명이 다른 두 명을 아이처럼 키가 작고 귀엽게 생겼다며 놀려댔다. 다른 출연진들은 중년의 경비원을 연상토록 하는 옷을 입었다고 놀림 받았다.

국제전략센터 여성주의 소모임은 위의 광고와 TV 프로그램 두 가지 매체를 대상으로 미디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면, 미디어 모니터링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너무 많이 알게 되어 힘들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 모임의 구성원 중 한 명은 소모임 카톡방에 한 여자에 대한 만화를 올렸다. 페미니즘적 미디어 비평을 진행한 이후, 더 이상 아무것도 마냥 즐길 수 없게 되어, 손에 얼굴을 묻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2주간 진행된 페미니즘 이론서 공부와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그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아름다움”이라는 관념과 이러한 미의 관념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고통, 통제를 지속해 왔던 나의 역할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출처: feimineach.com)

“아름답다”거나 “섹시”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수잔 보르도의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은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모성을 상징하는 풍만한 몸을 아름답다고 여겼다고 이야기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남성 위주인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노력하면서, 절제와 통제력을 보여주는 몸을 가꾸는 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사회가 여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기준은 이 두 가지를 넘나들었다. 때로 이 기준들은 현대 한국인들의 S라인에

대한 집착과도 같이 통합되기도 한다. S라인을 가지려면 날씬해야 할 뿐 아니라 가슴과 엉덩이가 풍만해야 한다. 즉, 현대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직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절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성을 요구하는 사회 기풍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보르도는 이런 모순과 긴장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극에 달하면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서 여성성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욕구가 신경성 무식욕증(거식증)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분출된다. 보르도의 관점에서 보면 거식증은 비록 비극적이고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절제와 지배를 상징하는 남성의 몸을 지향하는 현대의 금욕 수단이다. 몸에서 지방과 군살을 제거하면서 집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풍만한 여성의 몸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때로는 삶을 대가로 이러한 저항을 한다.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노력은 정치의식을 발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압박에 저항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여성성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평등을 확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남성의 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나는 애플루트 보드카의 광고를 보고 이를 알게 되었다. 광고에서는 두 명의 날씬하고 매력적인 20대 여성이 클럽의 프라이빗 룸에 지루한 듯이 앉아서는 그 장면을 누군가가 완성해 주기를 기다린다. 그 뒤로 “미래는 당신의 것”이라는 네온 사인 글자가 번쩍인다. 남성이 주인공이고, 두 여성은 보조역이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두 여성은 어떤 남성을 만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것이고, 그는 애플루트 보드카를 판매하는 클럽의 룸을 대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일 것이다. 소비되는 상품으로서, 여성은 엄격한 미적 관념과 사회적 규정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소비자로서의 남성은 그들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듯, 해당 광고의 이미지는 시장을 통해 남성을, 그리고 외모와 역할을 통해 여성을 통제한다. 광고에서는 여성들 간의 동지애도, 보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나 기쁨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고지방·고열량에 영양분은 별로 없는 가공식품을 소비하듯 여전히 그러한 이미지를 소비한다.

현대 사회의 가공식품은 수렵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고영양 식품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기 위한 지방과 당분 함유량이 높다. 자라면서 이와 같은 음식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의 입맛이 변하게 되고, 건강한 음식을 즐기기가 힘들어진다. 같은 이치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날조된 이미지를 계속 소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인간성을 포착하는 데에서 멀어지게 된다.

여성주의 소모임에서는 이론도 공부하지만 각 개인의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에도 도전한다. 이는 단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책임에 관한 것이다. 남성이 외모를 가지고 여성을 대상화한다면, 여성 억압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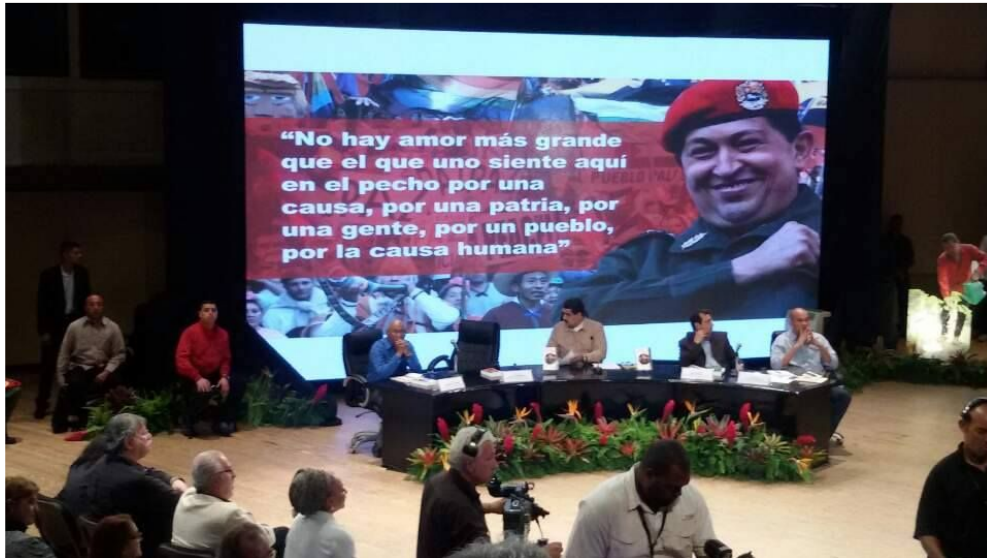
우리가 페미니스트로서 해방을 추구한다면, 사회가 여성의 몸에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습관과 관습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꺾이고 주저할 때, 사람들이 사랑과 연대로 서로를 대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혁명의 수호와 전진을 위한 베네수엘라 인민의 투쟁은 계속된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 4주기 기념 행사를 다녀와서-

(맨위로)

허석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ISC 자문위원)



지난 3월 5일은 볼리바르 혁명에 불을 지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한 4주기 기념일이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4주기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벌이면서 민중과 함께 혁명의 지속을 다짐하였다.

그 기념행사 중 하나는 볼리바르 혁명을 지지하는 해외인사들을 초청하여 세계각지의 사회운동과 볼리바르 혁명운동의 연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 기업 미디어의 왜곡보도에 반대하고 인간해방적 관점에서 볼리바르 혁명운동의 현 상황을 보도하는 대안적인 언론 네트워크와 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 아메리카를위한볼리바르동맹(ALBA) 국가들 사이의 민중적 연대를 통한 볼리바르 혁명의 지원 등의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초청된 인사들은 “ALBA 운동 대표단”에 소속되었고, 다른 지역에서 초청된 인사들은 지식인 네트워크와 외교관련 특별 초청단, 사회운동관련 초청단에 속하였다. 이 세 그룹은 한편으로는 각각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초청인사들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도 같이 진행하였다.

3월 5일 초청단은 모두 국립역사기념관에서 열린 차베스 추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민중이 만든 군인”이라는 주제로 국제 초청단과 조국 블록이 같이 야외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가하였는데 차베스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회고를 러시아, 쿠바, 콜롬비아, 베트남 대표가

발표하였고 베네수엘라의 평범한 민중으로 구성된 청중들은 중간 중간에 “차베스 만세! 혁명은 계속된다!”를 연호하면서 고 차베스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갈 것을 맹세하였다.

이어 국립역사기념관 한 가운데 안치된 차베스 대통령의 묘에서 종교행사를 포함한 차베스 대통령 추도식이 거행되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헌화하고 석관을 만지면서 애도하였다.

6일 세 그룹은 각각 포럼을 진행하였는데, 필자는 지식인 네트워크가 진행한 포럼에 참가하였다. “해방적 커뮤니케이션인가 식민지화한 조국인가?” 포럼은 외교부 장관 공관인 까사 아마리야의 안토니오 호세 데 수크레 실에서 6일과 7일 양일간 열렸다.

특히 6일 저녁, 마두로 대통령은 테레사 까레노 극장에서 열린 지식인 네트워크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증과 네오 나치 운동이 부활하고 있지만 사회운동 역시 그런 경향에 맞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점에서 희망을 본다고 하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오늘날처럼 진보적, 사회주의적 운동이 반동적 경향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극적이고 다중심적인 민주적 세계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최근 카라카스에서 열렸던 비동맹운동 가맹국 정상회의에서 그는 세계 평화를 위해 서로 다른 문화간, 다른 지역 간의 대화를 제의하였다고 말하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된 거대한 진보의 파동이 지나간 후 이제 아르헨티나의 마꼬리와 브라질의 테메르 등이 주도하는 반동적 흐름이 라틴아메리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이는 제1의 물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2의 해방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3월 7일 오후에는 전체 초청인과 “조국 블록”이 같이 대통령 관저인 미라플로레스 궁에서 마두로 대통령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아이사미 부통령과 문화부 장관도 참석하였으며, 차베스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어린이들의 공연이 있었고 초청단을 환영하는 마두로 대통령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각국에서 참가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바르셀로나에서 온 활동가는 시리아 전쟁과 미디어 전쟁에 대해 자신들의 조직이 낸 책을 주면서 교류를 제안하였다.

6일과 7일 간에 걸쳐 진행된 지식인 네트워크 포럼(해방적 언론인가, 식민지화한 조국인가?)에서는 베네수엘라 측 발표자와 해외초청인사의 발제가 있었고 참가한 청중석에서 현재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 기업 미디어의 왜곡 보도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올해 15차 포럼을 차베스대통령 4주기에 맞춰 개최하였는데, 정식 명칭은 “인간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과 예술가 네트워크”이다.

6일날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그 선언문을 중심으로 7일에는 여러 참가자들 사이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국제적 권리를 억압하고 정당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국제적 음모에 대해 경고하였다.

칠레 상원의원인 한 참가자가 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선언문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형집행인 노릇을 하고 있는 미주기구(OAS) 사무국장을 비난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거짓 뉴스에 맞설 것을 호소하였다. 그 가짜 뉴스의 목적은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인 마두로를 직위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볼리바르 혁명을 좌절시키려는 국제적 우익의 일관된 기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가짜뉴스에 맞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도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문은 주장한다.

7일의 토론에서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들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토론되었다. 특히 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조작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었으며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그들 나라에서 베네수엘라와 볼리바르 혁명에 대한 보도의 실상과 그것에 맞서기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6일날 오전에는 다른 포럼인 “대중운동 조직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준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포럼이 열린 극장에는 “조국 블록”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객석을 채웠고 각국의 사회운동 조직에서 온 대표자들 중 베트남, 인도, 콜롬비아, 칠레, 스페인 대표가 볼리바르 혁명운동을 지원하고 자국의 대중들에게 베네수엘라 인민의 투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운동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간간히 객석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혁명의 수호를 위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No Volveran(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을 외치는 민중들의 표정에서 어렵게 달성한 혁명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결의가 엿보였다.

8일 문화부 차관 주재로 조찬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서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에 대한 많은 질의와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베네수엘라 민중과 볼리바르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감명깊었던 것은 이번 초청단 중에 팔레스타인 쪽 참가자들이 많이 참가하였는데, 그들은 베네수엘라에 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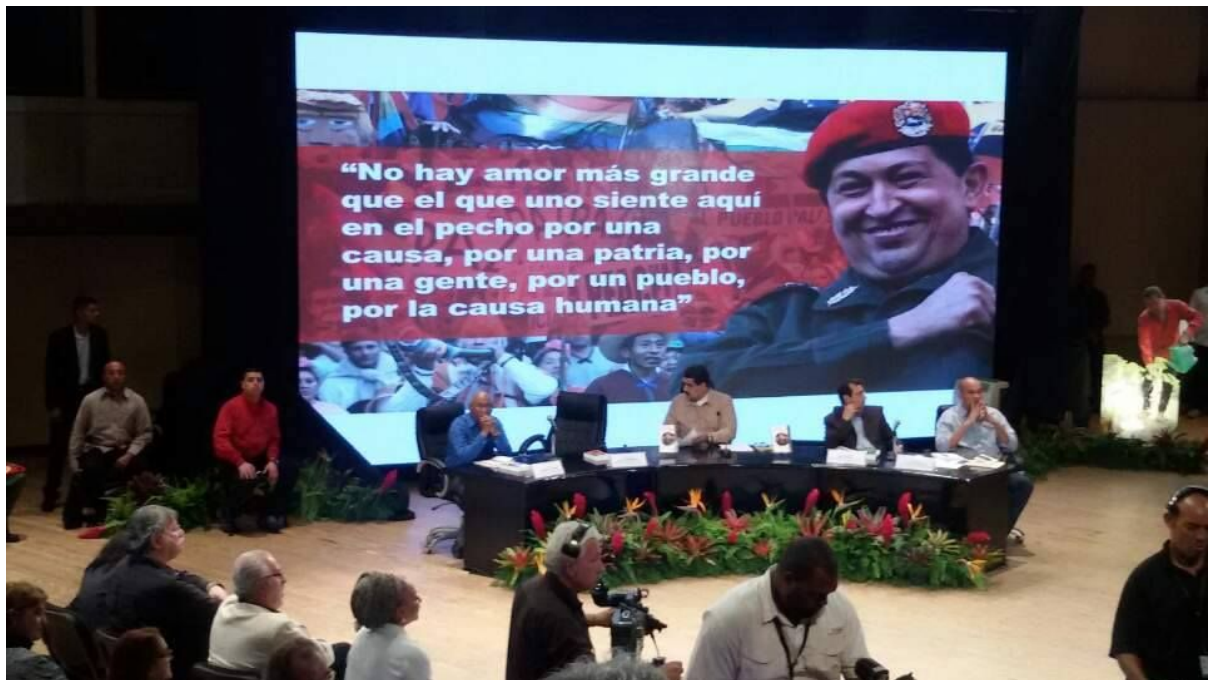
연대하는 나라 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이다. 역시 볼리바르 혁명은 가장 핍박받는 민중과 함께 하는 혁명이었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추모식 사진 스케치

(맨위로)

글: 송대한(The 숲 편집장)

번역: 심태은(The 숲 한글본 편집장)



“대의, 국가, 민중, 국민, 전 인류적 대의에 대한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것은 2013년 3월 5일이다. 그의 사망 4주기를 맞아, 베네수엘라에서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모식, 포럼 및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992년 2월에 고 차베스 대통령이 실패로 돌아간 군사 쿠데타(1989년에 일어난 민중 폭동 “카라카소”를 탄압하는 정부에 반발로 촉발됨)를 일으켰을 당시 본부 역할을 했던 카라카스 군사학교(마운틴 바락)에서 추모행사가 시작되었다. 이 군사학교는 현재 차베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추모관련 행사는 3월 15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추모행사는 고 차베스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도 했지만, 그가 1999년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 내세웠던 정치, 경제 혁명에 대한 의식을 다시금 강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의 지식인, 활동가, 정부 대표단은 추모식뿐만 아니라 볼리바리안 혁명에 연대를 표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전파하는 외신과 투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과 워크숍에도 참여했다. 전 세계가 함께 볼리바리안 혁명을 수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볼리바리안 혁명의 운명은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의 민중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이 인정 받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투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 추모식



추모식은 카라카스 군사학교(마운틴 바락)에서 시작되었다. 4F는 2월 4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 차베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날이다. (출처: granma.cu)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차베스의 묘 외부에서 고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기도 했다. (출처: elpitaz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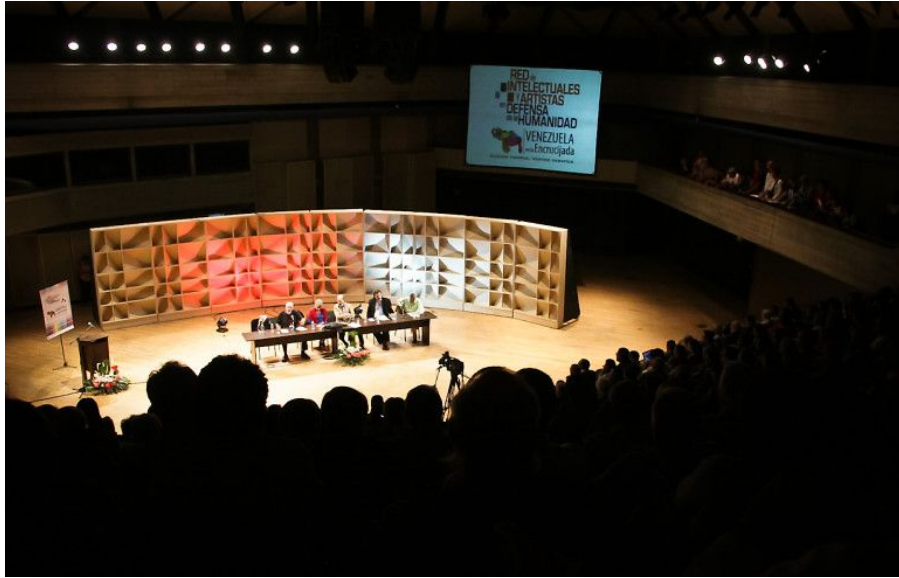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민중이 만든 군인” 행사에서 전 세계 대표단과 대화하기 위해 모여 있다.

인간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과 예술인 네트워크 포럼



마두로 대통령이 인간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과 예술인 네트워크 포럼 참가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출처: YouTube)



인간성 수호를 위한 지식인과 예술인 네트워크 포럼 (출처: albaciudad.org)

반제국주의 차베스 포럼



(출처: Twitter @Sencamer_)



(출처: Twitter @Sencamer_)

1회 풀뿌리 운동 단체 및 사회운동 총회의 준비회의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시스템에 저항하고자 11월에 카라카스에서 개최되는 1회 풀뿌리 운동 단체 및 사회운동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 운동의 대표들이 준비회의를 진행했다.

(출처: diario-octubre.com)

세계여성의 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 노예였던 히폴리타(Hipolita)와 마테아(Matea), 원주민 여성 아파쿠아나(Apacuana)의 유해 상징물이 국가 판테온으로 옮겨졌다. (출처: avn.info.ve)

반제국주의의 날



3월 9일 이른 아침에 수 천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반제국주의의 날을 맞아 행진하고 있다.

(출처: avn.info.ve)

4.국제뉴스

[프랑스]이민정책 토론에서 주도권을 쥔 르 펜¹

(맨위로)

번역: 정성미(ISC 국제팀)

1년에 이민자 20만명을 1만명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국민전선 대표²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불편해 보였다.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이민을 멈춰야 합니다.” 3월 20일 저녁 마린 르 펜이 강하게 말했다. 이어서 르 펜은 프랑스에 정착하는 외국인 수를 1년에 1만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빈틈없이 짜인 토론에서 국민전선 후보는 니콜라 사르코지나 프랑수아 올랑드의 5년 임기동안 해마다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20만 명(2016년에는 227,550명)의 수를 줄일 방안을 제시했다.

¹ Débat présidentiel : sur l'immigration, les candidats ont laissé le champ libre à Le Pen, Maryline Baumard가 쓴 2017년 3월 21일 르몽드 인터넷 기사. 4월 23일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 1차 투표를 앞두고 3월 20일 월요일 저녁 실시된 TV 토론 내용 중 이민정책에 관해 썼다. 이 TV 토론 후 국민전선 르 펜은 앙 마르슈!의 마크롱(Emmanuel Macron)에게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주었다.

² 마린 르 펜(Marine Le Pen)을 가리킨다. 국민전선(Front national)은 그녀의 아버지인 장 마리 르 펜이 1972년 창당한 극우 정당이다. 마린 르 펜은 국민전선 대표이면서 대통령 후보이다. 중도 진영으로 분류되는 마크롱과 함께 지지율 1위를 다투고 있어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과 겨룰 것으로 예상된다.

마린 르 펜은 평소처럼 자신의 지지자가 환호하게 했다. 르 펜은 ‘국경’을 정비해야 한다거나(2015년 11월 이후 국경 장벽이 대대적으로 재건축되었는데도), ‘이민자를 빨아올리는 펌프’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을 위한 ‘국가 의료 보조’나 ‘주택 보급’과 같은 조치를 폐지해 ‘이민을 단념시키는 정책’을 주장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려고 애썼다.

이민정책과 관련해 아무도 르 펜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르 펜은 매년 ‘20만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프랑스에 들어오고, ‘적어도 같은 수의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들어온다고 주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프랑스의 누적 불법 체류자는 실제로 20만~40만 사이로 여겨진다.

사실 TV 중계된 이 토론은 이민정책에 대한 다른 후보의 불편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격렬한 토론을 선호하는 프랑수아 피용³은 국민전선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 국민전선 후보의 과도함에 놀려 자신의 정책을 ‘팔지’ 못하였다. ‘최소한의 이민’을 주장하고 있는 피용은 ‘매년 국회가 정하는’ 입국 ‘할당량’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정책에 나왔고, 2012년 대선 결선에서 프랑수아 올랑드가 정책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둘 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 부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철회하였다.

이 상황은 브누아 아몽⁴과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 후보는 이민에 대한 사회당의 불편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진정한 이민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월 20일 아몽은 ‘인도주의 비자’와 ‘난민에 대한 최선의 대우’를 위한 투쟁을 상기시키면서 난민 보호시설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장-뤽 멜랑송⁵도 마찬가지였다.

에마뉘엘 마크롱도 같은 입장에서 공격의 각을 잡았다. 현 총리인 베르나르 카즈뇌브의 말을 빌려 ‘인간성과 안정성⁶’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앙마르슈! 후보는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서류 검토 시간을 줄인 후, 보호시설을 요구하는 난민은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하고 부적합 판결을 받은 난민은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 3% 난민이 돌려보내졌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우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를 이은 좌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이민정책이 보기보다 더 복잡함을 보여준다.

원문 출처:

http://www.lemonde.fr/election-presidentielle-2017/article/2017/03/21/debat-presidentiel-sur-l-immigration-les-candidats-ont-laisse-le-champ-libre-a-le-pen_5098277_4854003.html

³ François Fillon. 프랑스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의 강한 후보였으나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아내와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 고용해 세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난 후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져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⁴ Benoît Hamon.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

⁵ Jean-Luc Mélenchon. 프랑스 좌파당 대선 후보.

⁶ l'humanité et la fermeté. 인간성과 안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은 현 사회당 정부의 수상인 베르나르 카즈뇌브(Bernard Cazeneuve)가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요약하며 한 말이다.

[라틴아메리카] 볼리비아, 보편적 시민권 도입을 주장하다.

(맨위로)

번역: 배경진(국제팀, ISC)



지난 3월 9일, 볼리비아는 6월 20일과 21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띠끼빠야에서 개최될 세계민중총회를 소집하면서, 유무형의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을 목표로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변화를 위한 중재위원회(Conalcam) 회원과 함께 참여한 짧은 기자회견에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 까라카스 방문 기간에 따로 만난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회원국 대통령들이 이 계획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운동은 이 보편적 시민권 의제를 전 세계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이민자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확장하려는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장벽이 라틴아메리카의 천연 자원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막는 것이 아닌, 이민자와 가난한 라틴계 사람들, 난민을 향해 세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회운동의 투쟁에서 힘을 받아, 정부와 민중이 함께 현재의 이주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민중총회는 볼리비아 외교부와 사회운동세력이 준비할 것이다.

이민자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 법률전문가, 진보 정부 대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다.

총회 요청 문서는 국제범죄에 대항한 싸움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외국인혐오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심해지는 개입주의 정책이 사람들이 자국에서 도망치는 이유가 되며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면 우려를 표했다.

때문에 세계민중총회 기간 동안에는 보편적인 시민권과 군사적 개입 반대에 대한 두 가지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원문출처:

<http://www.thedawn-news.org/2017/03/13/in-an-increasingly-xenophobic-world-bolivia-makes-a-call-to-create-universal-citizenship/>

국제전략센터는 연대와 변화를 통해 대안사회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월간국제동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자문위원

남문희(시시안 한반도 전문기자)
신순애(탁틴내일 상담가)
이정철(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충각(노동운동 활동가)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존스캣(Reciprocity)
클런더 로라(해외입양활동가)
차미경(기록학 연구가)
허석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해외통신원

로날드 콜린스(활동가, 미국)
래리 로젠버그(환경활동가, 미국)
메르시-리아리나스 앙헬레스(평화여성파트너, 필리핀)
자넷 찰스(평화의 증인, 미국)
까뜨리나 사문(그레인, 인도네시아)

편집장: 심태은

교열팀: 가빈 후앙, 릴리안 헥스터

번역팀: 이주희, 홍정희

국제팀: 배경진, 이로미, 정성미